

2021년 7월 8일(목)

11: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최윤정 활동가

(070-4760-1216)

김현지 정책실장

(070-4760-1213)

## - 기자회견 취재요청 -

“식용견은 없다!” 2021년 초복 기자회견

### 그들도, 우리도 원하는 개식용 종식!

###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일시	2021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2

## < 식순 >

순서	발언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동물권행동 카라
현황 및 경과보고	
활동가 발언(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발언(2)	동물권행동 카라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중 1인 또는 나눠서
구호	참석자 모두 함께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기자회견 참가자는 9인으로 한정합니다.

○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은 열악하기 그지 없는 사육시설에 연간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가두고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며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등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산업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사용 가능한 식품원료를 명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검증조차 불가능하여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칼을 빼들기는 커녕, 개식용 종식을 끊임없이 염원하는 국민들을 향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좌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개식용 금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 달성에 성공했고, 청와대는 당시 공식답변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지난 1년 여 간 국내에서 불법 개농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농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45%이상의 개농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개농장주의 61.7% 이상이 개농장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과 학대가 난무하는 개식용 산업의 사양화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탓하며 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 카라는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인 식용견 경매장, 개농장, 개도살장 폐쇄를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그 어떠한 자발적인 단속, 점검, 처벌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불법 그 자체인 개식용 산업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한 정부의 용단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7월 9일 (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퍼포먼스 예정) 이후 7월 11일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십 수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외쳐왔던 개식용 종식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조속한 개식용 종식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1. 7. 9.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기자회견은 9일 오전 10시부터  
카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KARA**